

업그레이드 me

걷기 명소서 '느림의 미학' 체험하기

해풍따라 느릿느릿...6천리 남도갯길 "올레!"



길을 따라 걷는 '올레' 열풍이 거세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산과 강, 바다 등 특색있는 자연 환경을 살려 문화와 자연생태를 느낄 수 있는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는데 앞다퉈 나서고 있다. 전남도 예외가 아니다. '남도갯길 6천리'사업에 따라 직접 발품을 팔면서 도보여행 코스로 새롭게 엮어 탐방로로 꾸미고 있다. 광활한 생활을 벗어나 호젓하게 걸으며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나들이길'이 꽤 있다. 걷기 좋아하는 '뽕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날씨. 서·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체험하면서 사색과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명품 길'을 소개한다.

진도 점도·해남 땅끝 해안길 흠·바다내음 동시에 순천만·정남진·보성 녹차길 차향·풍광에 취하고

전남도는 '남도갯길 6천리 사업'으로 서남해안 곳곳에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고 있다. 갈대밭 사이를 걸으며 해안 생태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순천만 갈대밭길.

◇진도군 점도 남망산 웰빙로길=휴넷새와 바다 내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탐방로다. 해발 150m 안팎의 완만한 등산로로 이뤄져 걷기 편하다. 숲길을 따라 걷다보면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쥐바위·병풍바위·거북바위 등을 배경으로 한 경치도 좋다. 걷기 편하게 군데군데 나무데크가 조성돼 있다. 진도군 점도 여미주차장에서 출발, 숲길을 지나 작은여미해안을 거쳐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10km 탐방로를 도는데 대략 5시간

이 걸린다. 여미주차장~쥐바위~병풍바위까지 1km 코스나 작은여미해안~팔봉바위~여미주차장으로 이어지는 2.5km는 1시간 탐방코스로 좋다. 5월부터는 인근에서 개매기 체험도 가능하고 회덮밥 등 먹거리도 많아 자녀들과 둘러볼만한하다.

◇해남 땅끝 천년 숲길=땅끝 땀에서 땅끝말을 거쳐 송호해변, 죽리 조개잡이체험장, 도솔봉과 미항사를 지나 봉동계곡, 대흥사, 강진 다산초당으로 연결되는 탐방로는 무려 60km에 이른다. 해안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완만한 등산로가 연결되는 우거진 숲길 등 걷는 재미가 쏠쏠한 구간이 많지만 하루에 '완주'하기는 어렵다. 그냥 아무 곳이나 돌아다녀도 다 좋은 곳이지만 반나절, 한나절 코스 등을 정해 걷는 게 건강을 지키면서 사색과 명상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땀에서 갈산마을~죽리 조개잡이체험장(10km) 구간은 해안 산책로, 도솔봉~미항사(8km) 구간은 우거진 숲길로 그늘이 드리워져 걷기에 쾌적하다. 흠이 지루해질만 하면 군데군데 경사도를 나무계단으로 단장했다. 전년고찰인 대흥사부터 운고산 유적지인 녹우당(8km) 구간은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까지 즐길 수 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사구미해변을 지나 북평면 이진마을 성터까지 이어지는 12km는 국도 77호선을 따라

가는 드라이브 코스지만, 전남도가 '남도갯길 6천리 사업'에 따라 노견 정비 등 갯길 조성에 나서고 있어 향후 도로위에서 감상하는 경치와 숲속에서 느끼는 상쾌함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순천만길, 정남진길=순천만 탐방로는 킨 흠쪽 넘기는 갈대밭 사이를 걸으며 주변 생태환경을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한 길이다. 오는 2013년 열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부지를 둘러볼 수 있고 바닷가 마을의 정취도 즐길 수 있다. 전체 12km를 걸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6시간. 특히 순천만 해변면 외은 선착장~용산 전망대를 거쳐 순천만 갈대밭길로 이어지는 6km 코스는 한나절(3시간) 걷기에 추천할만하다. 용산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 드넓은 갈대 군락은 장관이다. 비가 와도 질척질척하지 않는 마사토(4km)로 단장한 탐방로를 거닐 뒤 먹는 갈대밭 선착장의 짬뽕어탕, 청동오리탕은 또다른 별미다.

장흥군 안양면 장재도부터 시작, 수문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4km는 해안을 따라 걷기 때문에 시원한 바다 풍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길이다. 탐방로 가운데 1km는 목재 데크로 정비, 편하게 걸닐 수 있고, 걷기가 끝난 뒤 워커프라 내 목욕탕에서 쌓인 피로를 풀고 장흥 토요시장과 할머니 장터를 돌아보면서 지역 정취도

만끽할 수 있다.

◇보성 녹차길=푸른 녹차 밭 새 나는 산책로다. 은은한 차향을 맡으며 한나절 산책을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 TV 드라마와 영화, CF 등으로 널리 알려진데다, 인근에 해안가를 따라 솔밭도 펼쳐져 호젓하다. 서편제 관소의 대가 정음민 선생의 생가도 둘러볼만하다.

보성군 화천면 군학마을부터 출발해 울포해수욕장까지 총 길이 14km로, 5시간이 넘는 길이지만 보성 제

2다원~정음민 생가(3.6km), 명교해수욕장~울포솔밭해변(2.1km)은 1시간 코스로 적당하다. 나들이 뒤 녹차밭에서 피로를 씻는 게 마무리다.

◇전남도, 50개 구간 선정 집중 조성=전남도는 올해 말까지 영광~광양까지 2천500km를 답사한 뒤 탐방로 조성이 가능한 50개 구간을 선정, 명품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288km에 대한 사전 답사는 마무리했다. 탐방로 선정 이후에는 노견 정비 및 꽃·나무 식재 등을 거쳐 지역 주요 관광지를 비롯, 문화·역사 유적지 등과 연계해 브랜드화 한다는 전략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이엘리시아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용량)
● 총 120명, 150명, 200명, 250명, 300명, 350명, 400명, 450명, 500명
● 소규모(100명) : 목동마을, 목동마을, 목동마을, 목동마을, 목동마을
● 대규모(200명) : 목동마을, 목동마을, 목동마을, 목동마을, 목동마을
062)671-1199
목동마을 목동마을 목동마을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량부모님 당신의 모자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